

# 카메라·드론·VR 전문 영상기법 배울 기회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열린미디어교실' 영상제작 기초·전문가 과정·현장출사 병행 기획·구도·캠코더 이용법 등 알짜 교육 어린이·청장년 맞춤 강좌 ... 수강생 모집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열린미디어교실'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열린미디어교실'은 영상 초보자와 어린이·청소년, 중·장년층 등 적성과 수준에 맞게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 영상제작 기초과정부터 전문가 과정, 현장 출사 교육을 병행한 사진촬영 과정 등이다.

먼저 9월3일부터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영상제작기초' 과정은 영상제작의 기획과 촬영, 편집 전 과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초교육 과정이다. 촬영 캠코더의 전원 켜는 법부터 카메라를 올바르게 잡는 법, 화면에 구도를 아름답게 넣는 방법 등 영상제작 알짜 정보를 눈높이에 맞게 알려준다.

'영상제작아카데미'는 오는 10월5일부터 11월7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열린다. 수강생들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과 각종 영상공모전에 도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만큼 전문가 과정다운 체계적이고 꼼꼼한 영상제작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심화과정이지만 어렵지 않다. 열정과 끈기, 인내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방송 및 영화, 미디어분야 진로와 재능을 발굴하고 싶은 청소년들과 청년층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11월 예정된 '사진촬영' 교육에서는 주먹을 이용해 야외촬영 연습도 간다. 디지털카메라의 원리 습득 및 사진촬영 기술, 현장 출사를 통한 실용적인 사진 촬영 방법을 배운다.

첨단 촬영 장비를 접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있다. 시청자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열린미디어교실' 가을학기 무료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센터 교육 실습 모습.

디어센터에서는 드론활용교육(9월·10월)과 드론실전교육(11월)을 받을 수 있다. 드론의 기초부터 영상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기초부터 배운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VR 기어로 360도 촬영을 해보는 강좌는 10월에 개설된다. 1인 미디어를 꿈꾸는 지방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도 같은 달 시작된다.

'맥(MAC)컴퓨터 활용교육' 과정도 있다. 컴퓨터 종류의 하나인 맥 컴퓨터의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교육이다.

어린이·청소년,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마련됐다. 이야기에 동화와 영상을 입히는 '미디어 동화만들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또 영상제작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 Adobe CS5.1을 배울 55세 이상 수강생을 모집한다. 센터에서 배운 미디어 활용 능력을 다시 재능기부할 수 있는 '미디어봉사단 S' 11기에 참가할 중·장년 참가자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kcmf.or.kr/comc/gwangju) 회원가입을 하면 강좌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 문의 062-650-03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가을하늘 별 헤는 밤

정남진 천문과학관 내달부터 천문캠프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별난 가족 별난 캠핑' 하반기 참가 가족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오는 9월1일부터 같은 달 15일·29일, 10월13일·27일 1박2일 간 장흥군 삼천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천문캠프를 운영한다.

토요일 오후 1시에 모인 참가 가족은 천체망원경에 관한 강의를 듣고 조립 실습을 한다. 또 태양 관측 안경과 골판지 망원경을 만든다. 해가 진 뒤에는 강사로 부터 별자리 설명을 들은 뒤 천체관측 촬영 시간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천체 관련 어플 활용법도 배운다.

참가비는 4인 가족 5만원(캠핑장이용료 3만원, 재료비 2만원)이다. 캠핑장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되며 장비는 2만원에 대여할 수 있다. 문의 및 접수 061-860-0651.

## 광주과학관 중이온 가속기 강좌

새로운 동위원소를 만들어내는 '중이온 가속기'. 이를 통해 다양한 물질의 성질도 연구할 수 있다. 일본에는 지난 2014년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해 '니호늄'이라는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



문창범 교수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이 대학연구 단지에 건설되고 있다. 한국 중이온 가속기 연구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강좌가 광주에서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31일 '가속기가 만든 노벨상-가속기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토코 콘서트를 연다. 강연자로는 문창범 호서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 062-960-6127. /백희준 기자 bhj@

## “새는 곧 살아있는 공룡”

영 켄트대 연구팀 계승 연구 과학저널 게재 외양 달라졌지만 염색체 배열 형태 비슷 염색체 40쌍 인간의 두배... 적응력 탁월

공룡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새로 진화해 둘의 사이가 먼 친척쯤으로 생각돼왔지만 '새가 곧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신과 과학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영국 켄트대학 생물과학대학원 대런 그리핀 교수 연구팀은 새와 거북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역추적해 약 2억6000만 년 전 공룡조상의 계승 구조를 추론하고, 염색체가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밝혔다.

최초의 공룡은 이 공룡조상 이후 2000만 년 뒤에 지구에 출현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개별 염색체는 내부적으로 유전자 배열을 바꾸지만 염색체 간에는 이런 배열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초기 공룡과 나중의 육식성 수각(獸脚)류 공룡의 염색체 형태나 크기, 수 등 핵형(核型)이 대부분의 조류가 가진 것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각류 공룡의 염색체 표본을 만들 수 있다면 타조나 오리, 닭 등의 그것과 매우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공룡이 약 40쌍의 염색체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도 마찬가지다. 이는 인간이 가진 23쌍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독일 LWL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깃털달린 육식공룡 데이노니쿠스 모형. <EPA=연합뉴스>

공룡은 염색체가 많은 덕분에 기후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6600만년 전 운석의 충돌로 멸종하기 전까지 1억7900만년 간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이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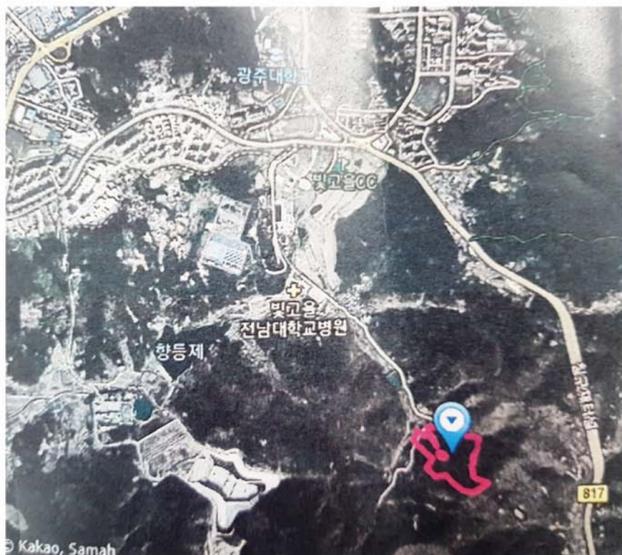
## 전파 정책 아이디어 찾습니다

과기부 설문조사... 11월 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2019년-2023년) 전파진흥기본계획 국민 정책제안' 설문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www.radioplan.kr)을 통해 진행한다. 과기부는 일반 국민과 학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관련 정책방안에 반영해 연말까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파는 TV 및 라디오, 이동통신, 위성 등 각종 산업의 무선 응용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우리나라 전파정책에 바라는 점,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정책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면 된다. 오는 11월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